

論 說

農村計劃上의 當面課題와 農工人의 役割

金 哲 基

(農博·忠北大學校 農大 教授)



農村計劃에 對한 定義를 살펴보면 學者에 따라 조금씩 見解 差異가 있기는 하나, 大體로 “都市와 農村의 關係를 包含시켜, 農村의 生產과 生活의 安定的 向上을 目標로, 農村地域의 社會構造, 經濟構造 및 物理的構造(施設構造)에 對한 有機的이고 綜合的인 整備를 위한 計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農工人은 農村이 갖추어야 할 諸般 物理的構造를, 變化될 農村社會構造 및 經濟構造에 有機的으로 어떻게 對處하여 綜合整備를 하여 나가느냐는 點에 特히 留念할 必要가 있다.

農村의 現實은 農業勞動力의 不足이 每年 深刻하여지는데서 오는 農業의 機械化問題, 農業技術의 高度化와 農產物의 商品化가 要求되는데서 오는 農業의 施設化 및 裝置化問題, 農村의 快適한 環境과 文化福祉의 渴望에서 오는 近代的인 生活環境의 改善問題, 青少年의 農業忌避現象에서 오는 農村後繼者の 確保問題등, 이루 말할 수 없을만큼 農村近代化計劃上 繁要하고 複雜한 問題가 많으므로 더욱 그러하다. 이와같이 農村近代化를 위하여 遂行하여야 할 課題가 너무나 많으므로, 오늘날까지 農村近代化事業의 一環으로 單純히 推進되어온 農業生產基盤整備, 農業機械化, 農業의 環境整備등만으로는 너무나 그 計劃이 單調롭고 有機性이 缺如되어 있어, 앞으로 이를 解決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農村의 綜合開發的 視角에서 보는 새로운 次元에서의 開發方向을 模素할 必要가 있다. 이런 點에서 앞으로의 우리나라 農村開發을 위하여는 政府에 依하여 그동안 推進되어온 農村近代化事業의 內容과 推進方法에 對한 反省 및 農村近代化計劃上에 서의 新로운 方向設定이 무엇보다도 重要하고, 여기에 또 우리 農工人의 農村近代化에 對한 強한 意志가 나타나야 한다고 본다. 이와 關聯하여 農村計劃上 몇 가지 重要한 問題를 強調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農村計劃은 長期的 眼目에서 그 內容이 갖추어져야 하고 이를 위한 與件造成이 구준히 進行되어야 한다. 모든 計劃이 그러하드시 近視眼의인 計劃은 훗히 未久에 다시 變更되어야 할 運命에 逢着하게 되어 그 生命을 發揮할 수 없다. 이것은 財產 및 精力에 있어 莫大한 損失이 될뿐만 아니라, 더 重要한 것은近代化가 그만큼 늦어진다는 事實이다. 따라서 農村計劃은 어디까지나 經濟與件의 變動에 따르는 農村人口의 動態와 農村經濟의 長期的 展望, 農業技術의 高度化 및 社會與件의 變動에 따르는 農業經營方式의 想定, 農家經濟成長에 隨伴할 住民의 文化生活水準의 想定, 農業技術의 科學化展望등 主要可變要因에 對한 長期的尺度를 올바르게 調査 把握하

여, 이것이 充分히 反映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안고 있는 問題點은 이를 뒷
받침할만한 與件과 環境이 미처 造成되지 못하고 있다는 點이다. 그동안의 農業生產基盤整備計
劃, 農業機械化計劃, 農村環境整備計劃만 보드라도 이들 計劃이 諸各其有機性을 잃은채, 서로
다른 所管部處에 依하여 樹立되고 있는데다가 別로 基礎的인 調查資料 및 研究資料 없이 施行하
여온 關係로 犯하는 試行錯誤가 많았다. 따라서 發生된 試行錯誤를 最小限으로 줄이고, 有機的
이고 綜合的整備가 되기 위한 農村開發計劃이 되기 위하여는 이를 뒷 받침할 研究機關의 設立과
아울러 지금까지 各部處가 諸各己 計劃하는 方式을 止揚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들 業務를 專門性
있는한 部處에 綜合管掌시키는 方向을 模素하여야 할 일이라고 본다. 더구나 이제는 새마을 事
業도 보다 높은 綜合開發的計劃性과 技術의 專門性이 要求되는 만큼 더욱 그러하다.

둘째 農村計劃은 綜合開發計劃의 方向에서 다루어져야 하며 各事業의 機能面 또는 施行面에
서 有機性을 可及的 높이는 方向에서 推進되어야 한다. 農村의 바람직한 모습은 이제까지 推進
하여온 農業生產基盤整備, 農業機械化, 農村의 環境整備에 對한 單純한 成就만으로 이룩될 수
없는 것이고 이들 事業間의 相互關聯性과 派生되는 問題點補完은勿論 農業構造, 經濟構造, 社
會構造등의 變化 및 農業技術의 高度化에 따르는 새로운 施設化問題와의 關聯性을 綜合檢討하
여 모든 要素의 特性이 綜合的으로 反映되는데서만 成就될 수 있다고 본다. 現在까지 犯하여
왔던 事業의 試行錯誤의 例를 살펴보면 農地開發 및 耕地整理計劃에 있어 農地와 聚落用地, 또는
市街用地間의 整備關係가 確立되지 못하였고, 農業機械化問題도 여기에 直接關係된 耕地整
理, 機械利用組織, 經濟性 및 그것이 本來 안고 있는 農業上의 여러가지 补完할 問題點 등에 대
한 充分한 研究 없이 機械의 數字的普及에만 置重하고 있고 聚落構造改善計劃 亦是 生產과 生活
의 兩面에서 앞으로 想定된 各種 農業施設, 마을共同利用施設, 附屬倉庫등의 施設과 그 敷地에
對한 것은勿論 衛生對策 및 公害對策에 對한 計劃이 別로 檢討되지 않은채 住宅改良一邊倒로
나가고 있는것 등을 들 수 있는데, 이와 같은 事實은 모두 事業間의 有機性 및 計劃의 綜合性이
檢討되지 않은데서 오는 좋은 教訓이 될 例라고 본다. 따라서 앞으로의 農村計劃에 있어서는 이
러한 試行錯誤를 可及的 再犯하지 않는 方向에서 農村計劃上 必要한 모든 要素에 對한 肯定的
要因을 綿密히 調査分析하여 그 마을의 開發方向에 對한 特性을 찾아내고 마을 全體가 機能面에
서 有機的인 均衡을 가져올 수 있는 方向에서의 綜合開發의 推進이 무엇보다는 緊要하다.

셋째 聚落構造는 生產과 生活의 兩面이 密接하게 連繫되는 場으로서의 特性이 充分히 反映될
수 있고 文化福祉指向이어야 한다. 農村聚落은 都市聚落과 달리 生產活動과 生活의 兩面이 密
接하게 連繫되는 特性이 있어야 하므로 生產活動과 生活이 密接하게 調和를 이룰 수 있는 關係
가 維持되도록 되어야 한다. 한쪽에 치우친 生產施設計劃은 生活環境을 侵害할 수 있고, 한편
잘못된 生活環境改善計劃은 健全한 生產活動을 不可能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다. 더구나 農業
및 畜產技術의 高度化와 農產物의 商品化의 必要에서 오는 施設化 및 文化福祉의 渴望에서 오는
施設化가 나날이 要求되어가는 마당에 또는 非衛生的 環境으로 부터 마을環境의 快適性을 守護
하려는 마당에 生產環境과 生活環境의 分別 있는 計劃은 더욱 重要하며 特히 生活環境改善에 있
어서는 짚은 農村後繼者의 農村離脫을 막는 方便으로 文化福祉指向의 農村建設이 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넷째 마을計劃은 住民들이 願하고 構想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正確히 調査診斷하는 同時に
그 마을이 지니는 特性을 살리는 方向에서 計劃하여야 한다. 現在의 聚落構造改善事業 및 住宅
改良事業은 住民들의 이에 對한 構想이나 慾求에 對한 것은勿論 마을傳統性 및 自然環境에 對

한 調査資料가 거의 없는 狀況에서 施行하여 왔던 關係로 너무나 計劃內容이 單調롭고 劃一性을 免치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農村計劃專門家가 전혀 없다는 것이 農村計劃上 가장 큰 問題의 하나이기도 하지만 마을計劃에는 그 마을이 가지는 歷史와 傳統이 무엇이고, 自然條件은 어찌하여, 마을사람들의 慾求와 마을開發計劃에 對한 構想이 무엇인가를 詳細히 調査하여 반드시 마을 特性이 反映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農工人은 農村近代化를 위하여 遂行하여야 할 役割이 무엇이고 時急히 補完되어야 할 技術分野가 무엇인가를 알아서 이에 對處하는 길을 模索하여야 한다. 우리 農工人이 이제까지도 農村近代化의 一翼을 擔當하여 온것은 事實이지만 農村全分野에 걸친 綜合開發의 次元에서 臨한 經驗이 없다고 보아도 過言이 아니다. 이렇게 된 原因으로는 우리나라의 農村開發政策이 아직 이런 程度에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고, 더구나 生活環境改善事業으로서의 農村聚落改善事業, 住宅改良事業, 環境改善事業이 새마을事業의 次元에서 農政當局 아닌 內務當局에 依하여 計劃推進되고 있어, 이에 對한 우리 農工人의 參與機會가 주어지지 않는데다가, 또 農工人 스스로도 이分野를 위하여 補完되어야 할 計劃 및 技術分野에 對한 關心이 너무 疎外되었다.

農業生產方式과 生活樣式의 發展에 따르는 새로운 生產施設과 文化福祉施設에 對한 專門性이 要請되는 마당에 우리 農工人이 지니는 使命과 役割에 對한 期待는 그 어느때보다도 크며, 農村開發의 主役을 우리 農工人이 擔當하여야 된다는 積極的인 姿勢를 가질 時機가 到來하였다라고 본다. 따라서 農村近代化의 綜合性과 有機性이 實現되기 위하여는 새마을事業으로 實施하여온 聚落改善등 農村環境改善事業이 農政當局所管事業으로 제자리를 구치게 할 수 있는 政策轉換과 農村計劃分野의 海外研修등에 依한 專門家 養成의 時急性 및 研究機關의 設立등이 特히 要請된다.